

□ 특별기고 □

##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방안

시스템공학연구소 이단형\*  
정보통신부 김 호·조을래  
시스템공학연구소 정현철

### 1. S/W산업 발전목표

S/W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향후 시장주도 및 경쟁우위 분야를 중점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S/W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 진입

구 분	1996년	2001년	성장률
생 산 전 망	38억불	200억불	39.5%
수 출 목 표	3천만불	25억불	142.2%
국 제 수 지	-4억천만불	11억불	
개 발 인 력	5만2천명	12만명	
1 인당 생산액	7만3천불	16만5천불	

### 2. 추진전략

S/W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실무 중심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5년간 7만 명의 S/W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총 시장 증가분의 10%를 공공부문 사업으로 신규 창출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R&D 비용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S/W산업의 총매출액 대비 '95년 5% 수준에서 2001년 12% 수준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전략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500개 이상의 S/W 업체의 창업을 유도하여 S/W수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S/W산업의 세계화 추진과 수출산업화를 위

\*중신회원

한 방안으로서 기술 및 시장정보 수집, 유통망 구축을 위하여 해외 주요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하여 선진국들과 전략적 기술 제휴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며 해외 전략지역의 현지사업 수주 및 국산 S/W의 세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S/W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 3.1 수요기반 확충

S/W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S/W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 S/W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 공공부문 외주화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S/W산업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S/W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구축 강화
- S/W 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
- 정품 S/W 사용과 S/W 상품가치의 인식제고를 통한 전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

세계 정보통신시장 대비 S/W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인데 반해 국내 정보통신시장에서 S/W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협소한 국내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모면에서 가장 큰 수요창출자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사회의 정보화추진을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

요하며, 정보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인 S/W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대형 프로젝트를 창출함으로써 축적된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S/W업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정보기술 경쟁력을 정부부문에 도입하여 정부부문 전산화의 효율적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정보시스템 외부위탁의 범위를 시스템통합구축에서 운영위탁까지로 확대실시하는 외부위탁제도(out-sourcing)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운영비용 절감과 아울러 수요창출에 따른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S/W산업의 내수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S/W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유통조직의 미흡과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이 유통체계의 미정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국산 S/W의 번들판매 자제를 유도하고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건전한 S/W 유통환경이 정착되어야 한다. 가격 중심의 경쟁에 의한 저가수주의 관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W가격 설정기준 권고 및 가격경찰제 실시, H/W 생산자의 번들판매 요구 억제 및 일괄사용계약(Site License)를 권장하며 공공기관의 S/W사업 외 주시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기술중심의 경쟁입찰제도의 적용을 권고하는 등 S/W 구매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S/W개발자는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에 의존하고 중소 S/W 업체는 유통채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다단계 유통구조(직판·총판·대리점 등)로 인한 유통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유통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S/W 지원센터의 유통지원 기능을 확충하여 중소 S/W업체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유통 및 마케팅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S/W의 상품가치에 대한 인식 부재로 S/W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S/W 산업의 특성상 불법복제는 산업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타산업에 비해 심각하며 현재의 법률상 불법복제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장치로는 미약한 실정이다. S/W 가치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S/W 정품사용을 홍보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친고죄를 개정하여 프로그램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를 위한 협의체운영을 강화하여 S/W개발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98년 신규 PC 구입비의 20%와 기존 S/W의 업그레이드 및 추가소요비용으로 PC당 5만원 이상을 S/W 구입예산으로 별도로 책정('97년 신규 PC 구입비의 10% 이상을 S/W 구입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품S/W의 사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확대와 아울러 정품S/W 사용에 대한 민간부문 및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수 S/W의 발굴, 유망 S/W의 홍보, 참신한 아이디어의 공모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사가 국내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S/W관련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S/W관련 행사를 종합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S/W산업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를 총괄하는 소프트웨어 EXPO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S/W의 개발·생산·유통업체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하는 장을 마련하고, 시장·제품·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설명회·공모전·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우수 S/W를 발굴하고 우수제품 홍보와 국내외 수요창출, 관련 조직간 정보교류, 영세 S/W업체들의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S/W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 3.2 S/W벤처기업의 중점 육성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리스크가 높다는 인식과 벤처캐피탈 출자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 미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S/W업체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이루어지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을 통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500개 이상의 유망 S/W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통한 영세한 S/W업체의 자금여건 개선

-S/W분야 우수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구축

-우수 신기술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 여건 조성

-S/W 벤처기업의 국제협력사업 기회 확충 및 해외진출 촉진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W기술의 가치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가해 주는 체제가 초보단계에 불과하여 우수 신기술이 벤처자금과 연계되지 않아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선진 평가기법의 도입, 평가전문가 채용 등으로 평가결과가 자금대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S/W분야 기술수준 등을 평가해 주는 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종합기술금융, 생산기술연구원내 기술평가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정부가 공인해 주거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지원대상에 대한 업종규제철폐 등 벤처캐피탈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97년 1,700억원 수준에서 2001년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자질을 갖춘 S/W 예비창업자 조기 발굴, 지방 대학생을 비롯한 참신한 인재의 S/W산업 유입, 유망 벤처기업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97년 4개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S/W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98년 이후 지방 S/W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국의 우수기술 습득,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등에 해외 S/W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해외창업, 비즈니스(현지 수출지원 등), 공동 프로젝

트 달성, 현지 전문가 및 협력기관 알선 지원, 국산 S/W 현지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기에는 해외에 가장 광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KOTRA 등 관련기관과 공조가 필요하다.

### 3.3 S/W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투자규모를 2001년까지 매출액 대비 12% 수준으로 확대하여 S/W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S/W전문인력 7만명 양성 추진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향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기술에 대한 비교우위 기술력 확보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고급 S/W기술자, 마케팅인력 등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분야별 S/W 전문인력을 2001년까지 7만명 양성 추진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 여건 개선

현재 국내 S/W업체들은 워드프로세서, 그룹웨어 등 특정 분야의 기술개발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부분야에서는 중복투자 등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상품화의 핵심기술인 요소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수준이 낮아 핵심 S/W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무역수지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애로 S/W 기술을 개발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컨텐츠, 패키지S/W, 시스템통합(SI) 분야에 대해 중점육성 부문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의 추진 및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화 능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첨단기술이 1~2년 이내에 상용화 기술이 될 정도로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처하고, 지금은 개념정의 단계에 있으나 향후 지능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신기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앞선 기술을 따라잡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중심 정보처리기술, 실감형 멀티미디어 정보처리기술 등 독자적인 첨단 원천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국내 출연(연)과 대학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관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고급인력의 창의적인 개발능력에 의존하는 S/W산업의 특성상 전문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필수적이나 S/W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향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출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S/W산업에 있어 수출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1,000여개의 S/W중소업체 중 수출능력을 보유한 업체의 수는 20여개 업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5년간 기존 인력공급기관을 통해 약 4만명의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인력 3만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기존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학 및 기존 S/W관련 전문학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발하여 4만명 단기 재교육(3개월~6개월)의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컴퓨터매니아가 되어 대학입학은 못하였으나 S/W개발에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미국: 패키지 S/W, 만화영화, SI; 일본: 게임 등)의 기술습득 및 제품화 전략의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대학원 및 선진국에 석사과정(테크노 MBA, 전산관련 학과)과 단기과정(해외 단기교육 전문과정)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해외장학사업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S/W관련 기술자격 제도는 산업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능력수준과 많은 괴리가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며, 기술의 생명주기(life cycle)가 짧고 발전속도가 빠른 S/W분야의 산업적 특성에 부

합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S/W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적절한 공급과 지속적인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S/W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변별력있고 공신력있는 개인별 능력평가를 전문분야별로 실시하여 개인이 보유한 실력에 준하는 전문기술 자격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S/W 전문기술 자격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금의 첨단 기술분야가 몇 년후에는 상용화 기술이 될 정도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것에 대비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구현이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선진 외국의 앞선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의 조기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종속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S/W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S/W업체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96년 5% 수준에서 2001년 12%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S/W개발촉진법을 보완하여 지분양도가 가능한 출자형태로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97년 100억원 수준의 공제사업기금을 2001년에는 1,000억원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 S/W업체의 안정적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S/W업체의 성장을 위해 자산가치가 적정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공모주식 인수가액 결정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 3.4 S/W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규제체제 정비

짧은 생명주기(life cycle)의 S/W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촉진 및 내수장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S/W산업에 대한 법령과 규제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수출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수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S/W산업 수출증대를 도모
- 장외시장 등록요건 완화 및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적 허용을 통해 자금조달 환경 개선
-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조세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정보화 추진기업에 실질적인 세제·금융상의 혜택 부여

현재의 수출보험제도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물적담보가 없는 S/W는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S/W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출보험공사 약관을 개정하여 단기수출보험제도, 수출신용보증 및 중장기수출보험 대상에 S/W산업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무역금융,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자금이 S/W업체에도 쉽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금융지원 대상은 통관 수출 외에 계약베이스 수출에도 적용하고 시설 및 운전자금의 용도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발급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고용계약기간 자동연장 등 해외 인력의 국내 취업절차 간소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등록요건, 외국인 투자제한, 유통성 부족 등이 직접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 S/W업체의 직접 금융조달 여건을 개선하여 투자유인을 통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소액주주 분산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장외시장 입찰단가의 제한을 완화하고 유동성 제고를 위해 주식분산비율을 연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등록기준을 수익성 기준에서 매출액 성장률, 연구개발 투자비율 등 성장성 기준으로 완화함과 아울러 S/W업종을 주식시장 상장시 별도 업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현행 규제위주의 다원화된 관계 법령·제도가 S/W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S/W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화에 투자하는 수요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추진 관련내용의 지원대상을 모든 기업의 정보화(H/W, S/W, 네트워크 등)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기록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보통신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조항을 변경

하여 면세되는 도서, 신문, 잡지의 범위에 전자 기록매체도 포함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S/W개발에만 적용되어 인력파견에 의한 개발용역을 지원하는 중소 S/W업체의 경우 사실상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프로그램 개발 용역도 현행 S/W 개발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면세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면세에 관련된 항목을 세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S/W개발촉진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등 부처별 산재된 영역을 조정하고 게임 S/W의 부처별 중복 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게임산업의 육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컴퓨터 게임장의 면적 및 이용요금에 대한 제한 완화 등 게임산업 관련 규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3.5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수출산업화 촉진

S/W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 21세기 S/W수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1년까지 수출액 25억 달러 달성

표 2 연차별 S/W 수출목표

(단위 : 백만달러)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96~2001 년평균 성장률
수출	35	102	227	506	1,126	2,506	142.2%

- 경쟁력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
- 단계적으로 해외시장 거점 확보 및 해외시장 기반 구축
- 세계시장을 선진국, 개도국, 잠재시장으로 구분하여 진출

S/W산업은 전세계적인 경쟁체제로서 이미 국내환경은 완전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나 국내 S/W산업의 기반기술이 선진 각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어서 기술력 등의 격차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해외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S/W수출액은 우리보다 후진국인 인도가 12억 달러('96년), 대만이 약 7억 달러('97년 목표), 아일랜드가 30억 달러('9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3천5백만 달러(’96년) 수준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S/W산업을 미래 정보화사회의 주도권 장악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범정부적 지원이 경쟁적으로 치열한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S/W산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임을 인식하면서도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금융지원, 정보제공 등의 지원정책과 제도도 미비하고 제반 금융·세계 지원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열세에 있다.

우리나라 S/W산업을 개방된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S/W산업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기술, 인력, 시장에서의 취약성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S/W산업의 내부 역량강화와 더불어 해외진출이 가능한 합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미국 S/W업체와는 핵심기술, 일본 및 유럽과는 응용S/W분야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 S/W업체의 국내 유치, 국내 기업과의 협력사업 및 공동투자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기업이 합작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잠재력있는 해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합병, 라이선싱(licensing)을 추진하고 현지 유망 S/W업체와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통해 관련 제품기술, 경영지식(know-how)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협소한 국내 S/W시장을 감안할 때 해외 판매망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중소 S/W업체가 독자적인 힘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마케팅 능력을 갖춘 업체가 부족하며 표준화 및 현지화된 제품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전세계적인 개방 경제체제가 구축된 S/W산업 분야의 치열한 경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

W업체들이 공동으로 해외 유통업체와 연계 또는 제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해외 유통전문회사를 인수/합병(M&A)하여 진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시장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수요자의 needs를 반영하지 않고 개발된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화된 틈새시장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관련 정보제공, 해외 인력 및 기술교류 앞선, 수출상품 발굴, 선진기술 합작사업 추진, 국산S/W 현지화 지원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S/W수출을 지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할 수 있는 수출전담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로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수준의 멀티미디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S/W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의 MSC, 100%의 외국인투자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도의 S/W Technology Park, 미국의 실리콘밸리 및 프랑스의 소피앙티플리 등과 같이 첨단 S/W 기술개발, 상용화, Total Informart, 수출전략 기지화 등의 기능이 집적화된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S/W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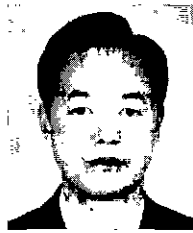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전자 유통망 구축 등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미래 유통구조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S/W의 해외진출시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의 홍보와 판매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유통망으로 이용함으로써 패키지S/W, 게임S/W 등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S/W Cyber Market의 조기 구축이 요망된다.

**이 단 형**



1973~현재 시스템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선임  
연구부장  
1990 소프트웨어공학 표준위원  
회 SC7 위원장  
1993~현재 신공항 건설공단 전  
산기술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전산학  
과 재원교수  
1996~현재 소프트웨어 지원센  
터 이사

**조 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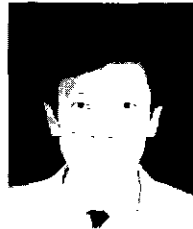
1978 육군통신학교 전자공학 교  
관  
1984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과 사  
무관  
1986 UN경제사회이사회 아·태  
지역(ESCAP) 근무  
1993 영국 LEEDS대학 국제정  
치학 석사, 과학기술처 정  
보산업기술과  
199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  
과

**김 호**



1980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1987 경제기획원 예산실  
1993 미 일리노이대학교 MBA  
1994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1996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  
과장

**정 현 철**



1992 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원  
1997 시스템공학연구소 선임연  
구원

**● 제2회 과학기술정보워크숍 ●**

- 일 자 : 1997년 11월 25일(화)~28일(금)
- 장 소 : 대덕 롯데 호텔
- 주 최 : 연구개발정보센터·정보관리학회·한국정보과학회
- 문 의 처 : 연구개발정보센터

Tel. 042-828-5076

<http://kosti.kordic.re.kr>